

# 윤정수, 올 씨름계 빛냈다



대한씨름협, 최우수선수 선정… 아마추어부문은 전도언

윤정수(현대삼호중공업·시진)가 올해 씨름계에서 가장 빛난 활약을 펼친 선수로 선정됐다.

대한씨름협회는 27일 오후 5시 서울 방이동 올림픽크로스에서 씨름인의 밤 행사를 열고 최우수선수로 선정된 윤정수를 비롯해 한 해 동안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들에게 상을 준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상은 2개 부문(정규대회·지역장사씨름대회)으로 나누어 치러진다.

지역장사씨름대회 최우수선수로 선정된 윤정수는 올해 보은 장사씨름대회와 청양 단오대회에서 정상을 차지하고, 천하장사대회에서도 4년 만에 우승하는 등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

우수 선수로는 이주용(한라급·수원시청),

임태혁(금강급·수원시청), 정민(태백급·울산동구청)이 선정됐다.

아마추어 선수들만 출전하는 정규대회 최우수단체상은 올 시즌 3개(학산김성률대회·선수권대회·증평인삼대회) 대회에서 우승한 연신중학교에게 돌아갔다. 연신중 구자경 감독이 최우수지도자상을 받는다.

최우수선수상에는 올 시즌 모든 대회를 석권한 전도언(능인중)이 선정됐다.

대한씨름협회 최대장 회장은 “많은 선수와 지도자들이 열심히 해왔기에 한 시즌을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며 “씨름인들이 하나가 되는 ‘씨름인의 밤’을 개최할 수 있게 돼 기쁘고, 내년 역시 역동적인 씨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 中 수영스타 쌈양

### “리우올림픽때도 꼭 금메달”

2012 런던올림픽에서 2관왕에 오른 중국 수영스타 쌈양(21)이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따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신화통신은 2012년 세계 수영계의 주목을 받은 중국 수영 선수 쌈양과 예스원을 다룬 기사에서 쌈양이 “런던올림픽은 내게 시작이었을 뿐”이라며 “다음 올림픽 때도 금메달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고 26일 전했다.

胖子양은 런던올림픽에서 남자 자유형 400m와 1500m 금메달을 목에 걸고 2관왕을 차지해 중장거리 세계 최강자로 우뚝 섰다. 특히 자유형 1500m에서 자신이 가진 세계 기록을 깨 다시 한번 주목받았다.

胖子양은 또 “다음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세계 기록을 또 깰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연합뉴스

## 메시 “우승 없는 골 기록은 중요치 않다”

### 최다 91골 신기록… 팀은 잇단 좌절 ‘아쉬움’

올해 91골을 터트려 ‘한해 최다골 신기록’을 달성한 리오넬 메시(바르셀로나)가 자신의 골 기록보다 소속팀의 우승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메시는 26일(한국시간) 스페인 일간지 ‘엘 문도 데포르티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항상 개인보다 소속팀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왔다”며 “팀의 우승 없이는 골 기록도 중요치 않다”고 말했다.

메시는 지난 10일 정규리그 15라운드 레알 베티스전에서 2골을 넣어 올해 통산 86골을 달성, 1972년 게르트 펠러(독일)가 작성한 한해 최다골 기록(85골)을 넘어서며 축구 역사에 새롭게 썼다.

메시는 여기서 거치지 않고 골 사냥을 계속 이어갔고, 마침내 28일 치른 올해 마지막 경기에서도 골을 터트려 ‘한해 91골’의 금자

탑을 세웠다.

이번 기록으로 메시는 3년 연속 국제축구연맹(FIFA) 팔롱도르 수상이 유력해졌다.

그러나 메시는 자신의 맹활약에도 올해 바르셀로나가 우승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에 마음 아파했다. 바르셀로나는 2011-2012 시즌에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4강 탈락에 이어 정규리그는 ‘라이벌’ 레알 마드리드에 우승을 내줬다.

또 지난 8월 정규리그 우승팀과 코파 레레이(국왕컵) 우승팀이 맞붙는 ‘수페르코파(Super Copas)’에서도 레알 마드리드에 무릎을 꿇는 등 올해 우승 트로피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특히 1980~90년대 국내 농구 인기가 최저점에 몰랐을 때 실업 청년들에 맞서 대학농구의 전성기를 주도한 학교가 바로 연세대와 고려대다.

/연합뉴스



26일(한국시간) 미국 프로농구 NBA 마이애미 히츠와 오클라호마시티 선더스의 경기. 마이애미의 르브론 제임스(가운데)가 호쾌한 덩크슛을 성공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 고려대-연세대 자존심 맞대결

### 8년 만에 농구대잔치 준결승 격돌

국내 아마추어 농구 최강을 가리는 신한은행 2012 농구대잔치 4강에서 ‘사학의 명문’ 고려대와 연세대가 맞붙는다.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 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열리는 두 팀의 준결승 승자가 삼부·상명대 경기에서 이긴 쪽과 28일 결승전을 치른다.

고려대와 연세대는 최근 경희대, 중앙대 등에 다소 밀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한국 농구를 이끄는 인재를 다수 배출한 학교로 그 상징성이 남다르다. 현재 남자 프로농구 10개 구단 감독 가운데 두 학교 출신이 7명이나 된다.

특히 1980~90년대 국내 농구 인기가 최저점에 몰랐을 때 실업 청년들에 맞서 대학농구의 전성기를 주도한 학교가 바로 연세대와 고려대다.

두 학교가 농구대잔치 준결승에서 맞붙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1998년 1월 당시 3전2승제로 열린 준결승에서 서장훈, 김택훈, 조상현, 은희석 등이 주축을 이룬 연세대는 현주연, 신기성, 이규섭, 전형수 등이 뛴 고려대를 2승1패로 물리치고 결승에 올랐다.

2004년 12월 단판 승부의 4강전에서 역시 연세대가 김태술, 전정규 등의 활약을 앞세워 김일우, 김지훈 등이 분전한 고려대를 89-81로 꺾고 결승 티켓을 차지했다.

8년 만에 다시 성사된 두 학교의 올해 농구대잔치 준결승에서는 그러나 고려대가 한 수 위의 전력을 갖고 있다는 평이다.

스포츠 전문 케이블-위성 채널인 SBS ESPN은 27일 오후 1시부터 남자부 준결승 두 경기를 생중계한다.

/연합뉴스

## 카바디협회 정가맹단체 의결

###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KOC)는 지난 18일 열린 이사회에서 아시안게임 종목인 대한카바디협회(회장 조재기)를 정가맹단체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체육회 이사회를 통과한 카바디협회는 내년 2월 열리는 대의원총회에서 정가맹 승인의 최종 결정된다.

인도와 파키스탄 등 서남아시아에서 활성화된 카바디는 슬래잡기와 피구, 격투기가 혼합된 변형 투기종목으로,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부터 정식 종목으로 제택됐다.

내년 인천에서 열리는 2014 아시안게임에도 정식 종목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2009년 체육회 준가맹 단체가 됐다.

체육회는 아시안게임 메달 획득을 위해 카바디를 정가맹 단체로 승인, 종목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연합뉴스

## 산행 안내

해외 및 섬은 계재가 불가합니다.(국민기념)

12월 29일(토)

▲남도산사람 12월 29일(토) 용암산(순창) 07:30 봇데마트월드컵점, 07:45 시청주차장건너편, 08:00 비엔날레주차장

\*다음카페 남도산사람 ☎ 010 4741 4433

▲광주도온양학회 12월 29일(토), 봇포, 고하고, 08:30 엄주체육관 출발!광주여, 비엔날레주차장 경유 \*다음카페 광주도온양학회 ☎ 010 3605 4267

12월 30일(일)

▲고구려산악회 12월 30일(일) 기차역, 광복역(해마다 산행), 광주여 04:00 출발 ☎ 010 603 7987

12월 31일(월)

▲광주철도길동호회 12월 31일(월) 신년맞이 정기행사 07:00 /모레사계공원 청파공원(주암·비암) 05:00 문예회관 후문 05:00

1월 1일(화)

▲광주산악회 1월 1일(화) 기차역, 광복역(해마다 산행), 광주여 04:00 출발 ☎ 010 3605 9910

1월 2일(수)

▲광주청룡산악회 1월 2일(수) 청남 고을, 마복산, 청원군 04:00 출발 ☎ 010 3605 9910

1월 3일(목)

▲광주산악회 1월 3일(목) 태백산, 04:00 엄주 07:00 /모레사계공원 청파공원 04:00 문예회관 후문 05:00

1월 4일(금)

▲광주산악회 1월 4일(금) 태백산, 04:00 엄주 07:00 /모레사계공원 청파공원 04:00 문예회관 후문 05:00

1월 5일(토)

▲광주진주봉산악회 1월 5일(토) 진주 07:00 /모레사계공원 청파공원 04:00 문예회관 후문 05:00

1월 6일(일)

▲오산회 1월 6일(일) 무등산, 동화사(시작지점) 07:00 /모레사계공원 청파공원 04:00 문예회관 후문 05:00

1월 7일(월)

▲광주청룡산악회 1월 7일(월) 청남 고을, 마복산, 청원군 04:00 출발 ☎ 010 3605 9910

1월 8일(화)

▲광주산악회 1월 8일(화) 청남 고을, 마복산, 청원군 04:00 출발 ☎ 010 3605 9910

1월 9일(수)

▲광주청룡산악회 1월 9일(수) 청남 고을, 마복산, 청원군 04:00 출발 ☎ 010 3605 9910

1월 10일(목)

▲광주산악회 1월 10일(목) 청남 고을, 마복산, 청원군 04:00 출발 ☎ 010 3605 9910

1월 11일(금)

▲광주청룡산악회 1월 11일(금) 청남 고을, 마복산, 청원군 04:00 출발 ☎ 010 3605 9910

1월 12일(토)

▲광주산악회 1월 12일(토) 청남 고을, 마복산, 청원군 04:00 출발 ☎ 010 3605 9910

1월 13일(일)

▲광주산악회 1월 13일(일) 청남 고을, 마복산, 청원군 04:00 출발 ☎ 010 3605 9910

1월 14일(월)

▲광주청룡산악회 1월 14일(월) 청남 고을, 마복산, 청원군 04:00 출발 ☎ 010 3605 9910

1월 15일(화)

▲광주산악회 1월 15일(화) 청남 고을, 마복산, 청원군 04:00 출발 ☎ 010 3605 9910

1월 16일(수)

▲광주청룡산악회 1월 16일(수) 청남 고을, 마복산, 청원군 04:00 출발 ☎ 010 3605 9910

1월 17일(목)

▲광주산악회 1월 17일(목) 청남 고을, 마복산, 청원군 04:00 출발 ☎ 010 3605 9910

1월 18일(금)

▲광주청룡산악회 1월 18일(금) 청남 고을, 마복산, 청원군 04:00 출발 ☎ 010 3605 9910

1월 19일(토)

▲광주산악회 1월 19일(토) 청남 고을, 마복산, 청원군 04:00 출발 ☎ 010 3605 9910

1월 20일(일)